

# The Golden Bowl 에서 본 삶의 意味

金 秀 宗

## I

*The Golden Bowl* 은 Henry James 가 完成한 마지막 長篇小說이다. 이 作品에서 그는 挫折이나 죽음을 選擇하는 것이 眞實한 삶의 一部라고 說破하는 從來의 立場을 달리하여, 現代世界에서 삶을 選擇하는 것이 可能한가를 묻고 終末에서는 heroine 이 勝利하여 살아남는 모습을 描寫하고 있다.

이것은 James 文學에 있어서 確實히 特異한 일이다. 그의 많은 長·短篇 중에서 傑作이라고 할 수 있는 *Roderick Hudson*, *The Princess Casamassima*, *The Wings of the Dove* 의 主人公들은 모두가 죽는다. 그리고 *The Portrait of a Lady*, *The Awkward Age*, *The Ambassadors* 등에서 主人公들은 自身이 希求하는 사랑이나 人間關係나 살아가는 方式에서 敗北하여 그것을 拋棄하거나 諦念하여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作品에 나타나는 이러한 特徵은 美國人 作家인 James 의 理想과 유럽의 實相과의 衝突에서 惹起되는 하나의 內的 conflict 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international situation 小說의 基調를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이 international situation 의 作品을 통하여 James 는 유럽의 美와 文明을 憧憬하는 純眞하고 道德的인 美國人과 文明이라는 外見의 美로 僞裝한 墮落하고 간교한 유럽人과를 對比시킴으로서 兩大陸의 風習이나 道德이나 人間觀이 비저내는 喜悲劇을 描寫하고 거기에서 삶의 意味를 探究하고 있다. 作中 浪漫的인 美國人들은 유럽社會의 風習이나 生活樣式의 優雅함, 높은 教養이나 아름다운 外貌에 魅惑된다. 그러나 유럽人들은 道德的으로 墮落해 있으며 아름다운 外見의 假面 속에는 陰險한 奸計나 冷酷한 利己心이나 貪慾스런 打算이나 頹廢한 人間關係등이 隱蔽되어 있는 것이다. 美

國人들은 이러한 現實社會의 複雜함, 특히 惡의 存在를 認識하지 못한다. 그들은 美가 곧 惡일 수도 있다는 事實, 즉 “the beauty and the grace that coexist with this corruption in a really old society”<sup>1)</sup> 를 모르는 것이다. 結局 外見의 美에 眩惑되어 實相을 看破하지 못하는 美國人들은 그 外見 속에 當然히 있을 것으로 確信했던 삶의 理想을 欺取당하고 挫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James 는 19世紀 後半에서 20世紀 初頭에 걸친 유럽文明의 內情을 폭로하면서, 그 모든 文明의 外形이 이제는 形骸에 不遇하다는 것을 提示해 간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外形이 同時에 高潔한 精神의 表象이기도 한 理想的 文明의 創造를 志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James 의 경우 이러한 理想的인 文明의 實現은 오직 유럽에서만이 可能하다고 믿게 된다. 비록 아무리 墮落한 곳이라 할지라도 유럽이야말로 美國人이 禱求한 唯一한 삶의 땅이며 여기에서 敗北한다는 것은 곧 삶을 拋棄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래서 James 의 作中人物들은 거듭되는 挫折을 무릅쓰면서 끝까지 유럽을 버리지 않는다. James 自身도 그의 藝術을 위하여 故國을 버릴 必要性을 느끼고 마침내 유럽에 永住하기로 決心한 以來 이 곳 以外에는 그가 살아갈 場所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作品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이곳에서도 眞正으로 社會에 뿌리박을 自身의 土壤을 發見하지는 못하였다. 그의 文學의 進展過程은 그가 이것을 깨닫는 데에 거의 一生이 걸렸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그 事實이야말로 그의 文學의 中核이기도 했던 것이다.

James 가 그토록 거듭하여 美國人의 理想的 삶과 文明과의 探究와 挫折의 얘기를 繼續했던 것도 한편에서 現實의 유럽世界에 幻滅을 느끼고 그 實態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 自身이 美國人으로서의 꿈을 가슴깊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事實 今世紀 初頭의 international theme 의 復活은 이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그의 後期의 作品에서 보는 獨特한 文體와 意識的인 視點의 使用등 새로운 技巧도 必然的으로 여기에 隨伴되는 것이다. 前世紀末에 이르기 까지 漸次 深化된 유럽社會에의 幻滅感과 社會에서 부터의 孤立感을 克服한 James 는 마침내 今世紀初의 三大傑作에서 美國人의 美的 道德的 理想主義를 描寫하고, 美國人들의 유럽에의 꿈을 통하여 하나의 理想的인 삶의 形態, 世界의 形態를 創造하고 提示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作品에서는 個人的 理想은 現實과 對決하여 勝利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前二作 *The Wings of the Dove* 와 *The Ambassadors* 에서는 主人公의 外面的 勝利는 아직 부여되지 않는다. 마지막 作品 *The Golden Bowl* 에 이르러 James 는 비로소 美國人의 勝利와 더불어 유럽社會와의 融和를 試圖하는 것이다.

1. Dorothea Krook, *The Ordeal of Consciousness in Henry Jam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8.

本稿의 意圖는 그 勝利의 實態와 그것이 意味하는 바를 究明하므로서 James가 到達한 文學世界의 一面을 살펴 보는데 있다. 다음에서 먼저 作品의 外面的 狀況을 檢討하고 이어서 內面的 狀況을 통하여 거기에 나타난 作家의 人間像이나 人生觀 내지는 世界觀을 알아 보기로 한다.

## II

*The Golden Bowl*은 第一部 *The Prince*와 第二部 *The Princess*로 構成되어 있다. 第一部에서는 주로 Italy의 젊은 公爵 Amerigo의 視點을 통하여 全體를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쌍의 國際結婚이 成立되고, 이어서 相互間의 生活觀, 人生觀의 差異나 理解不足으로 結婚生活에 금이 가는 狀態가 描寫되고 있다. 주로 生活의 日常的인 水準에서 諸般 問題가 取扱되고 있으나, 同時에 美國人과 유럽人과의 差異에 主題를 擴大해 가고 있다. 第二部에서는 主題 그 自體도 多少 變化하며 일단 第一部의 結婚의 危機 부근에서 부터 視點이 Maggie에게 옮겨진다. 그러나 主題는 日常的인 夫婦間의 不和나 離婚騷動 따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純眞한 Maggie는 男便의 不倫을 알고 이 世界의 眞實에 눈을 뜨게 됨으로서 惡의 存在를 알고 人間의 마음의 可憐함과 複雜함을 깨달아 간다. 그녀의 浪漫的인 世界觀은 崩壞되고 孤獨 속에서 이 世界의 內部에 潛在하는 苦惱를 알며, 그런 가운데 이 世界를 肯定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第二部는 結婚의 問題를 떠나서 崩壞해 가는 유럽 世界의 內情,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象徵的인 次元으로 變化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第一部의 外的狀況을 보면 作品의 舞臺는 London과 그 郊外에 限定되어 있고, 人物도 中心人物인 네 사람, 즉 Italy의 名門貴族의 후예인 Prince Amerigo, 그의 아내인 美國女性 Maggie, 그녀의 父親인 美國人 大實業家이며 巨富인 Adam Verver,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된 美國女性으로 完全히 유럽의 教養을 갖춘 Charlotte가 있으며, 그 밖에는 plot의 解說이나 進行을 돕기 위하여 Assingham 夫妻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場所와 人物과의 單純化는 象徵的인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Prince와 Charlotte가 유럽社會를 代表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주는 것이다.

沒落貴族인 Amerigo는 歷史의 精粹를 한몸에 지닌 歷史의 體現과도 같은 人物이다. 그의 뛰어난 美貌나 悠然的 風格 그리고 優雅하고 洗練된 몸가짐은 實로 魅惑의이다. James는 그의 魅力을 描寫하는데 讚辭를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Prince의 푸른 눈을 그는 이렇게 表現하고 있다.

The Prince's dark blue eyes were of the finest, and, on occasion, precisely, resembled noth-

ing so much as the high windows of a Roman palace, of an historic front by one of the great old designers, thrown open on a feast-day to the golden air.<sup>2</sup> (p.29)

그는 外見에 못지않게 精神도 大凡하고 大貴族의이다. 그러나 그의 行動의 規準은 그가 自覺한 道德이나 意志에 의한 것이 아니라 祖上傳來의 manner가 無意識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에 不遇하다. 그는 무슨 일이나 圓滿하게 解決되기를 바라고, 그 理由 같은 것에는 介意치 않는다. 그는 Maggie의 純潔함과 Verver氏의 善良함에 끌려서 結婚하지만 그들의 莫大한 財富가 하나의 魅力이기도 하다는 것을 自認한다. 그러나 그는 祖上들의 狼費癖을 自身에게 訓戒하기도 하고, 決코 속인 것은 아니라고 反省하면서도 意外의 幸運에 充分 感謝하며 美國人들의 歡心을 사려고 決心한다. 다만 念慮되는 것은 美國人들이란 쉽게 理解할 수 없는 存在이며 不知中에 過誤를 犯할지도 모를 危險이 있다는 점이다. 事實 그는 事態의 進行上 自然히 손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건, 비록 그것이 옛 愛人이라 할지라도, 拒絶할 수 있는 道德心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그의 훌륭한 意志에도 不拘하고 옛 愛人과의 關係를 復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注目할 것은 Prince 自身 美國인과 같은 道德心이 自己에게는 없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그 道德心の 差異를 Assingham 婦人에게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moral, dear Mrs. Assingham. I mean, as you others consider it. I've of course something that in our poor dear backward old Rome sufficiently passes for it. But it's no more like yours than the tortuous stone staircase—half-ruined into the bargain!—in some castle of our quattrocento is like the 'lightning elevator' in one of Mr. Verver's fifteen-storey buildings. Your moral sense works by steam—it sends you up like a rocket. Ours is slow and steep and unlighted, with so many of the steps missing that—well, that it's as short, in almost any case, to turn round and come down again." (p.21)

Prince는 그나름의 大凡한 精神으로 美國人을 理解하려고 努力한다. 그는 지금까지의 偏見을 버리고 過去와의 因緣을 끊어서 科學적으로 되고 새로운 歷史를 만들려고 까지 생각하며 Verver氏가 企業을 가르쳐 줄 것을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ironical하게도 美國人 父女の 유럽觀은 오히려 그를 過去에 固定시켜 놓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讚揚하는 것은 유럽의 傳統의인 歷史이다. Maggie는 Prince家의 歷史가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것을 기뻐한다. Prince는 自己의 一部가 先祖의 罪와 愚行과 狼費등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Maggie는 歷史같은 것은 두렵지 않다고 대답한다. 오히려 Prince가 좋아진 것은 "the generations behind you, follies and the crimes, the plunder and the waste—the wicked Pope, the monster most of all"(p.6) 때문이라고 말한다. Prince는 그 背後의 歷史의

2. Henry James, *The Golden Bowl* (New York: Grove Press, 1962), p.29.

※ 이하 인용문의 page는 앞체에 의함.

眞相을 모르고 徹底하게 믿어버리려는 Maggie의 純眞함에 놀란다.

“You Americans are almost incredibly romantic.”

“Of course we are. That’s just what makes everything so nice for us.”

“Everything?” He had wondered.

“Well, everything that’s nice at all. The world, the beautiful world—or everything in it that is beautiful. (pp.6—7)

Maggie의 생각보다는 Verver 氏의 유럽觀 쪽이 이 作品의 基調를 決定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重要한 意味가 있다고 하겠다. Verver 氏는 美術品 蒐集家이다. 즉 그의 目的은 유럽에서 珍貴한 美術品들을 사들이는 것이다. 從來의 James의 作品의 美國人 主人公들이 유럽에 와서 魅惑된 것은 文化遺產이나 美術品이나 사람들의 아름다운 外見이나 風俗이나 教養 등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Verver 氏가 유럽에서 求하는 것은 한장의 메달에서 낡은 敎會堂에 이르기 까지 自己의 돈으로 사서 蒐集할 수 있는 美術品 뿐인 것이다. 게다가 蒐集할 수 있는 美術品이란 반드시 物件만은 아니다. 그에게는 Prince와 같은 人間이야말로 高價의 美術品이며 眞品인 것이다. 그는 딸의 사위로서 Prince를 蒐集하고 同時에 自身의 아내로서 모든 社界의 教養을 갖춘 美貌의 Charlotte를 역시 眞品으로 蒐集한다. 그는 old Persian carpets와 new human acquisitions 만큼이나 다른 것에 같은 尺度를 適用시키고 있다. 이것은 유럽에는 過去의 美術品 以外에는 價値있는 것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James의 見解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Verver 氏처럼 人間에게도 美術品の 尺度를 適用하는 것은 奇妙한 일이다. 確實히 다른 作品에서도 James는 藝術品の 比喩를 人物에게도, 또한 重要한 場面에도 使用해왔다. 그러나 *The Ambassadors*의 Paris 郊外의 江邊의 場面이나 혹은 *The Wings of the Dove*의 宮殿의 場面만 보더라도 그것들이 그림에 比喩되고 있는 것은 일찌기 그러한 名畫를 낳은 model로서의 삶이 如前히 유럽의 現實에 存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驚異와 讚揚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場面은 生命力에 넘쳐 藝術品이 되기 前의 삶을 營爲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藝術品の 比喩는 決코 不自然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죽어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Verver 氏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蒐集할 수 있는 過去의 죽은 것, 購入하고 所有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美術品과 마찬가지로 人間을 評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非人間性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見解에는 人間の 內面을 無視하고 外見의 價値를 重視하는 傾向이 있다. Maggie는 第一部에서 이러한 父親의 見解를 自覺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나 第二部에서는 人間の 內面의 drama에 눈뜨게 되고 外見과 內面의 새로운 關係를 自覺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Verver 氏가 巨萬의 財富을 蓄積한 후 유럽의 藝術品을 사들이는 것은 確實히 意味深長한 일이다. 그의 野望은 유럽의 寶物들을 蒐集하여 美國의 都市에 美術館을 建立하는

것이다. 確實히 그 美術館은 유럽의 文明을 象徵할 것이다.

... it was positively civilisation condensed, concrete, consummate, set down by his hands as a house on a rock—a house from whose open doors and windows, open to grateful, to thirsty millions, the higher, the highest knowledge would shine out to bless the land. (pp.101—102)

그는 일찌기 文明을 覬望하여 유럽에 건너간 Roderick Hudson 的인 巡禮에 代身하여 美國으로 文明을 輸入하려는 것이다. 옛날 敎皇까지 배출한 家系와 身分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狼費로 沒落한 Prince 의 歷史와 蓄財하여 유럽을 사들일 氣勢를 가진 美國人 Verver 氏와의 歷史는 兩大陸의 歷史的 힘의 優位의 逆轉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Verver 氏의 美術品 蒐集은 象徵的인 意味로 發展될 수 있는 것이지만 實際로 Verver 氏 父女가 Prince 와 Charlotte를 藝術品 처럼 看做하고 있는에는 問題가 있다. 다시 말해서 美國人 父女는 유럽人의 男便과 아내를 마치 훌륭한 藝術品 처럼 取扱하여 그들의 生活上의 모든 일은 勿論이고 精神的인 면까지도 解決해 버리는 것이다. 反面에 유럽人들은 限定된 家庭의 生活에 倦怠를 느낀다. 그들은 華麗한 社交生活을 즐기는 習性이 있고, 특히 Charlotte는 社交界의 舞臺에 登揚하여 사람들과 交際함으로써만이 그 魅力을 十分 發揮할 수 있는 人物이다. 結局 두 사람은 사이좋게 公式席上에 드러나게 된다. 사랑하는 사이였던 그 두 사람은 서로가 納得하여 헤어진 후에 그들 나름대로 駁實한 새 出發을 다짐했으나 Verver 氏 父女가 너무 親密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接近할 機會를 갖게 된다. 그들은 美國人들을 "They were good children," "absolutely nothing on earth worth speaking of" (p.237) 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Verver 氏의 財富 德分에 또 한번 같이 즐길 수 있게 된 運命에 感謝하고 자기들을 正當化해 간다. James는 Prince 와 Charlotte를 통하여 道德心 代身에 世上事에 能하고 高尚한 趣味를 行動의 規準으로 삼고 있는 유럽人의 頹廢相을 實로 巧妙하게 描寫하고 있다.

한편 James는 Prince 와 Charlotte를 마치 유럽의 象徵답게 極口 讚揚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狀大하고 完璧하고 高貴하고 偉大하고 卓越하다. 그리고 거듭되는 image에 의해서 當當한 모습으로 浮刻되는 것이다.

James는 自由奔放하고 華麗한 유럽 社交界의 背景을 暗示하면서, Prince 와 Charlotte를 그 魅力과 道德의 頹廢를 包含하여 完璧하게 表現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결코 많은 批評家가 하는 것처럼 性急히 그들을 斷罪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Verver 氏 父女가 그들을 放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行爲는 正當하다 던가, 그들은 moral의 缺如 때문에 況阻를 받고 있다면가, 그들은 犧牲者라든가, 惡人이라든가를 性急하게 斷言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確實히 第一部에서는 國際結婚을 둘러싸고 그들의 日常的 道德觀이나 生活觀의 차이나 家庭生活에서의 不滿등에 다분히 重點이 놓여져 있으나, James文學의 主題는 本來 이러한 日常的 行爲

의 道德的 是非 그 自體는 아니다. 이 小說도 後半에서는 焦點이 삶의 意味를 探究하는 James의 意識에 맞추어진다. 그리고 말하자면 前半에서 完全히 描寫되고 設定된 世界를, 銳敏한 感受性과 道德意識을 지닌 純眞無垢한 者의 意識을 통하여 보게 됨으로서, 얼마나 이 世界가 內面精神에 있어서 完全히 頹廢하고 있는가를 描出하고 삶의 意味를 묻게 되는 것이다.

F.R. Leavis는 섬세한 우리의 道德意識을 잊지 않은다면 이 作品의 美國人들에게는 同感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Actually, if our sympathies are anywhere they are with Charlotte and (a little) the Prince, who represent what, against the general moral background of the book, can only strike us as decent passion; in a stale, sickly, and oppressive atmosphere they represent life.<sup>3</sup>

Leavis의 Verver氏 父女에 대한 不滿은 贊成할 수 없으나 Prince와 Charlotte가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된다. 유럽은 James文學에 있어서 언제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善과 惡과 美와 醜한 것을 包含한 歷史의 무게를 가진 無意識의 삶이다. 그러나 James에게는 이 現實의 삶은 그것이 아무리 活力에 넘치고 魅力的인 것일지라도 언제나 결코 眞實한 삶은 아니었다. 現實의 삶과 意識을 통하여 追求되고 創造되어가는, 있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삶과의 差異야말로 James 後期 作品의 主題인 것이다.

美國人들이 처음부터 이 無意識의 삶을 갖는 것은 許容되지 않고 언제나 圈外에서 그 삶이 어떠한 苦悶과 高貴함과 報償과 犠牲의 代價로 成立되고 있는가를 意識하므로써 거기에 接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Pattern은 30年前 'Madame de Mauves'以來 James文學에 一貫된 것이었다. 이 短篇에서 아내에게 冷待받아 自殺하는 佛蘭西貴族인 Mauves나 narrator인 美國人이 佛蘭西 郊外에서 目擊한 젊은 한쌍의 男女가 善惡의 區別없이 유럽의인 삶을 表現하고 있다면, 男便의 不義에 苦悶하는 美國女性 Mauves夫人이나 夫人을 사랑하면서도 強하게 求愛하지도 못하는 narrator인 美國人은 유럽의 삶을 批判하고 羨望하면서도 삶의 圈外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美國人이나 30年後의 *The Ambassadors*의 Strether나 *The Wings of the Dove*의 Milly가 現實로 自己가 살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혹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現實의 삶의 意味를 가장 深刻하게 느끼는 것은 그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追求하는 삶은 現實에선 얻을 수 없는 理想이며 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理想이나 꿈에 對比해서 만이 이 現實의 삶의 墮落을 한층 더 強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3. F.R. Leavis, *The Great Tradition* (Penguin Books, 1948), p.178.

*The Golden Bowl*의 경우에도 Maggie는 眞實로는 살지 못했던 것, 이 세계의 內部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自覺한다. 그녀가 男便과 Charlotte의 不倫의 關係를 알고 마침내 男便을 奪還하게 되는 過程에서 James는 두가지 점을 強調하고 있다. 즉 그녀의 寬大한 理解力과 沈默과 冷靜한 忍耐로서 傍觀하는 態度이다. 그때까지의 Charlotte와 Prince 사이에는 美國人 父女에 對抗하여 同盟하는 意味가 強烈히 있었다. 그러나 일단 Maggie가 意識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相互理解는 意味를 喪失하게 된다. 특히 Maggie가 證據를 잡고 男便에게 한마디 알린 다음에는 Prince는 아내와 提携하여 Charlotte와의 關係를 清算해 간다. 그런 가운데 Maggie는 沈默과 忍耐로 事態를 理解하려고 努力한다. Verver氏도 漸次 이 事實을 感知하고 Charlotte를 監視하게 되고 Maggie에게 協力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作品에서도 *The Wings of the Dove*의 Milly의 경우 처럼 欺滿당한 事實을 알고 있으면서도 寬大한 理解力과 忍耐力으로 끝까지 冷靜을 維持하는 高邁한 精神世界가 讚揚되고 있는 것이다.

後半에는 Maggie의 視點에서 全體를 보고 있기 때문에 Prince의 內心은 明確히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程度 Maggie를 理解하고 있는가도 分明하지 않다. 이 점만 보더라도 이 作品의 主題가 Prince의 成長과 救濟에 있다든가 하기에는 疑問이 있다. 다만 Maggie의 寬大함과 理解力과 사랑이 그를 當感케 하여, 그가 알지 못했던 精神의 世界를 느끼게 하고있는듯 한 것은 確實하다. Maggie는 그를 한번도 非難하지 않을 뿐더러 苦悶하고 있는듯한 Charlotte를 同情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Prince는 마침내 "Taste, in him, as a touchstone, was now all at sea" (p.532)를 느끼는 것이다.

이 作品은 家庭的인 水準에서 볼 때 Maggie가 父親으로 부터 獨立하여 男便의 사랑을 얻었다는 意味에서 그녀의 成長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lot의 進行上 重要한 것은 Maggie가 그녀의 潔癖性 때문에 Prince와 Charlotte를 彈劾하여 結婚을 破壞하고 그들을 버리는 代身에 오히려 그대로 受容하는 것을 撰擇한 점, Prince와 Charlotte 쪽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情熱 때문에 結婚을 破壞하는 것 보다는 保留하는 것을 撰擇한 점이다. 이것은 일단 Maggie의 男便에 대한 變함 없는 사랑과 Prince의 Maggie에 대한 사랑의 覺醒이라는 것으로 說明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Maggie가 男便을 奪還하기 위하여 隱密히 취한 行爲에는 그녀의 現實에의 妥協과 純眞함의 拋棄가 있음을 無視할 수가 없다. 그리고 Prince와 Charlotte가 Verver氏의 財富을 拋棄할 생각이 없다는 打算, Verver氏가 美術品으로서의 그들을 廢棄할 생각이 없다는 점등이 그들이 現狀을 保存하는 하나의 理由로서 推測할 수가 있을 것이다. James는 그러나 이러한 점을 되도록 表面化하지 않는다. 그리고 美國側과 유럽側과의 前例없는 必死的인 接近과 妥協이 어찌면 雙方의 價値를 不純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犧牲을 甘受하는 限이 있



드라도 이 世界의 파괴 보다는 肯定과 保全을 그리고 可能하면 內面的 回復을 表現하려고 努力한데에 James의 苦境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 作品은 表面上으로는 家庭的 不和나 愛情의 갈등을 表現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底邊에서는 보다 一般的인 삶의 意味, 즉 이 世界에서 可能的인 삶의 方式이 探求되고 있다.

作品의 後半에서 특히 各樣各色的인 image를 통하여 表現되는 Maggie의 意識은 결코 心理的인 realism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表現되는 感情은 plot上에 그것을 惹起할 原因이 되는 對象物이 반드시 存在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照應해야 할 事實을 超越한 感情의 發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作品이 日常生活의인 家庭的 不和나 사랑의 勝利 以上の 것을 表現하고 있다고 認定한다면 이 感情이 惹起하는 曖昧性은 어느 程度의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作品의 人物들을 각각 神이나 惡魔나 人間이나 歷史등에 부합시켜서 이것을 swedenborg 神學의 allegorical한 이야기라고 主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보다는 이 個人的 家庭的인 問題가 同時에 널리 人間一般의 狀態를 象徵하고 있거나, 혹은 世紀末에서 今世紀에 걸친 유럽 世界의 狀態를 象徵적으로 表現하고 있다고 認定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먼저 Maggie의 意識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表現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Maggie가 自己의 人生에 무엇인가 奇妙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이 아름다운 世界를 꿈꾸던 그녀의 浪漫的인 人生觀은 崩壞된다. 그녀는 自己의 人生의 한복판에 불현듯이 생겨난 奇妙한 것을 곰곰히 바라본다. 그것은 "some strange, tall tower of ivory, or perhaps rather some wonderful, beautiful, but outlandish pagoda" (p.289) 처럼 솟아 있으며 그 入口는 아무데도 없다. 더 없이 아름답게 裝飾된 表面은 꺾어 볼 수 없으며 그녀는 그 怪異하고도 魅力的인 塔의 周圍를 徘徊할 따름이다. 그러나 時間이 흐르고 그 아름다운 表面안에 숨겨진 可恐할 事實을 感知하게 된다. 그것은 그녀가 純眞하게도 믿고 있던 男便과 繼母인 Charlotte의 背信이다. 이 事實에 直面한 Maggie는 衝擊的인 恐怖를 느낀다.

... the horror of finding evil seated, all at its ease, where she had only dreamed of good; the horror of the thing hideously *behind*, behind so much trusted, so much pretended, nobleness, cleverness, tenderness. (p.455)

일찌기 Maggie는 "She wasn't born to know evil. She must never know it" (p.54)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感覺은 大文字의 E로 시작하는 惡(Evil)이라고한 것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使用되는 惡이란 말은 抽象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作品에서도 보는 것처럼 innocent 한, 말하자면 墮落 以前의 Eden 동산에 있는 것같은 美國人의 유럽의 惡에 대한 強力한 primitive 한 感覺이다. 즉 個別的인 惡의 行爲라고 하기 보다는 惡一般의 存在의 認識이라는 形態를 갖는 것이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거의 抽象的이라고할 수 있는 惡의 存在에 대하여 innocent 한 者가 느끼는 강한 恐怖를 描寫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惡役인 유럽人의 描寫에 있어서는, James는 어디까지나 realism의 原理에 充實하려고 하고 있다. 初期에는 殺人과 같은 melodramatic 한 惡이 描寫되었으나, 점차 利己主義나 金錢慾이나 鐵面皮나 背信 등 人間內面의 惡이 作品의 重大한 主題가 되어 간다. 이들 惡의 行爲者들은 一面 溫順함과 勇敢함과 사랑과 品位를 갖추어 있기도 하며 實로 魅力的인 人間다운 人間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처럼 惡이 日常的, 人間的으로 描寫되면 될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innocent 한 者에게 주는 抽象的 恐怖의 크기와 사이에서 斷絶이 惹起되는 것이다. James의 이른바 曖昧性에 대한 하나의 原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斷絶이나 曖昧性도 惡의 感覺을 통한 James의 經驗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先親에게서 遺傳된 生來의 것이라고 본다면 어느 程度의 解明이 可能하지 않을까 한다. James의 惡의 感覺을 그 強烈함에 있어서 宗教的이라고 보았던 Graham Greene이나 F. O. Matthiessen<sup>4)</sup>등에 의해서 이미 James의 惡의 感覺은 James家의 傳統에 起因된 것이라는 見解가 밝혀지고 있는 바이나 다음에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James의 兄인 心理學者 William James나 先親인 作家와 同名의 Henry James에게는 類似한 惡의 幻像에 대한 體驗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James의 作品에 影響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James의 先親은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理由도 없이 激烈한 狂的인 恐怖에 사로잡혀 무서운 幻覺 속에 빠졌던 일이 있으며 그 症狀이 頻發하여 二年餘에 걸쳐 精神的 苦痛을 겪었다. 그의 兄 William 역시 自己存在에 대한 慄然한 恐怖에 掩襲되어 每日같이 人生의 不確實性을 느끼며 恐怖 속에서 잠이 깨는 精神狀態를 數個月이나 經驗했다. 아마도 이들의 強迫觀念은 共히 正統의 信仰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이 몹시 宗教的이었다는데에 原因이 있었을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先親인 James는 swedenborg 哲學에 歸依하고, 兄 William은 自己의 自由意志에 立脚한 哲學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러한 不安에서 부터 脫出하는데 成功했기 때문이다.

4. F.O. Matthiessen, "The Religion of Consciousness", *Henry James: The Major Pha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4), pp.140-43.

作家 Henry James 에게는 이와 類似한 經驗은 볼 수 없으나 그의 作品에서 보는 거의 超自然的인 惡의 存在에 대한 恐怖의 感覺에는 父親이나 兄과 同質의 것이 느껴진다. 例를 들어 *The Turn of the Screw* 의 幽靈의 모습이나 前述한 “evil seated all at its ease” 와 같은 表現에서 父親이나 兄의 幻覺과 James 의 幻覺과의 類似性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그의 경우에도 惡은 生命을 窒息시키는 威脅이며 人間의 知力을 擊破하는 幻想이다. 그것은 明瞭한 不道德이라는가 罪의 意識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人間을 無力하게, 人間을 完全히 癡人化시키는 것, 自己가 自痴처럼 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防禦하는데 人間의 힘은 無力하게 만드는 恐怖이다.

이러한 人間의 無力에 挑戰하고 人間을 嘲笑하는 것같은 숨겨진 威脅의인 힘에, 體系的 哲學을 가지고 對抗한다는 것이 作家 Henry James 의 役割은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란 具體的 人間狀況 속에서 人生의 全體的 모습을 捕捉한다는 것, 人間의 意識 속에 깊이 들어가 거기에서 漂流하는 것을 可能限 明白히 밝히므로서 이 威脅이 뛰어나오는 暗黑의 範圍를 좁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그로서는 「본다」든가 「意識한다」든가 하는 일이 바로 삶을 意味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의 作品에서 具體적으로 나타난 惡의 行爲에 不均衡한 強烈한 恐怖의 感情이 描寫되는 것도 祖父代까지는 生活의 구석구석을 支配했던 強力한 形式을 가진 宗教的 感情이 急速히 그리고 意圖적으로 그 形式을 喪失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表現을 求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aggie 의 경우에도 恐怖는 強烈하다. James 는 거듭되는 image 를 통하여 浪漫的인 世界觀이 虛無하게 된 후의, 理解하기 힘든 暗黑의 世界속을 더듬어 나아가는 Maggie 의 恐怖와 無力感을, 孤獨한 苦悶을 삶을 박탈당했다는 意識을 表現해 간다. 使用되는 image 는 다분히 暴力的이다. Maggie 가 Prince 와 Charlotte 는 너무나도 자기에게 親切하다고 느꼈을 때 그녀의 感情은 이러했다.

They had built her in with their purpose—which was why, above her, a vault seemed more heavily to arch; so that she sat there, in the solid chamber of her helplessness, as in a bath of benevolence artfully prepared for her, over the brim of which she could but just manage to see by stretching her neck. Baths of benevolence were very well, but, at least, unless one were a patient of some sort, a nervous eccentric or a lost child, one was usually not so immersed save by one's request. It wasn't in the least what she had requested. She had flapped her little wings as a symbol of desired flight, not merely as a plea for a more gilded cage. (p.317—18)

보다 더 激烈한 表現도 있다. 事態는 進展하여 Charlotte 가 Prince 의 冷肅해진 것에 苦悶한 나머지 事情을 直接 Maggie 에게서 알아낼려고 하여, 마침내 Maggie 에게 「자기에게

무슨 不滿이 있는 것은 아니나」고 묻고 Maggie가 무엇인가를 感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場面이다. Maggie는 Charlotte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미 그 意圖를 알아차리고 逃亡치고 싶으나 斷念한다.

Maggie came on with her heart in her hands; she came on with the definite prevision, throbbing like the tick of a watch, of a doom impossibly sharp and hard, but to which, after looking at it with her eyes wide open, she had none the less bowed her head. By the time she was at her companion's side, for that matter, by the time Charlotte, had, without a motion, without a word, simply let her approach and stand there, her head was already on the block, so that the consciousness that everything had now gone blurred all perception of whether or no the axe had fallen. (p.459)

그리고 周圍를 감싸는 暗黑이 強調되기도 한다. Maggie는 身邊에 惡의 많은 可能性을 느낀다. 그녀 自身이 “the night-watcher in a beast-haunted land who has no more means for fire” (p.500)을 답아서 暗黑 속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낀다. 暗黑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 幽靈과 密閉의 image이다.

그러나 苦痛을 받는 것은 Maggie뿐만은 아니다. Maggie의 想像力과 銳利한 意識은 Prince나 Charlotte가 沈默 속에 참고 견디는 危險이나 苦惱를 感知한다. 그녀는 그 두 사람이 怯에 질려서 當惑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들이 각각의 役을 演技하고 있는 동안에도 危險은 언제나 周圍에 따라다닌다. 마침내 Maggie는 Charlotte가 事態를 모르고 沈默 속에 苦痛 받고 있는 것을 느낀다. Maggie나 Verver氏가 監視하는 가운데 Prince에게도 Charlotte에게 Maggie가 알고 있다는 事實을 說明해 줄 뜻이 없기 때문이다. Maggie에게는 Charlotte가 새장 속에 가두워진 새와 같이 여겨진다.

Maggie's sense meanwhile open as to the sight of gilt wires and bruised wings, the spacious but suspended cage, the home of eternal unrest, of pacings, beatings, all so vain, into which the baffled consciousness helplessly resolved itself. The cage was the deluded condition, and Maggie, as having known delusion—rather—understood the nature of cages. (p.449)

더구나 Verver氏가 이제는 Charlotte에게 壓力을 가하는 것처럼 Maggie에게는 느껴진다. 두 사람이 Verver氏가 蒐集한 美術品을 보고있는 것을 Maggie가 지켜보는 場面이 있다. Charlotte는 Verver氏의 조금 뒤에 있으면서 그가 停止하면 停止했다. 두 사람의 間隔이 變치 않는 것은 그가 주머니 속에 넣은 한쪽 손에 그녀의 아름다운 목 둘레에 매여논 비단 halter의 끈을 쥐고 있는 것같았다. 그는 잡아 당기지 않았으나 그녀는 달려 왔다. Charlotte는 마침내 Prince와 헤어져 그녀가 그토록 嫌惡하는 美國으로 돌아가야 할 運命이 臨迫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Verver氏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Maggie는 느낀다.

... I lead her now by the neck, I lead her to her doom, and she doesn't so much as know what it is, though she has a fear in her heart ... (p.490)

Prince의 경우에도 苦痛을免치는 못한다. Maggie는 그가 別莊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홀로 아무도 없는 London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어두운 방안을 걸어나다니면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想像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It was like his doing penance in sordid ways—being sent to prison or being kept without money; it wouldn't have taken much to make her think of him as really kept without food. (p.496)

以上에서 모든 것은 Maggie의 意識을 통하여, 그녀의 想像이나 推測을 통해서 敘述되고 있다. Prince나 Charlotte는 결코 惡의 化身은 아니며, 따라서 Maggie가 느끼는 恐怖의 直接的 對象이 아닌 것처럼 Maggie와 Verver氏가 Prince와 Charlotte에게 多少의 威脅을 주었다 하더라도, Verver氏가 現實적으로 Charlotte를 監禁하거나 힘으로 屈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drama가 現實에서가 아니라 沈默 속에서 內心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들의 暗黑이나 密閉나 暴力의 image가 強烈하다. 그리고 Maggie의 意識의 두꺼운 層 속에서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推測에서 敘述되고 있기 때문에 人物 相互間의 communication의 缺如가 切實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음의 暗黑 속에서 暗默의 去來가 있고 鬭爭이 있고 監禁되고 投獄되고 halter를 메게되고 혹은 斷頭臺에 오르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Maggie의 無力感이나 恐怖, Prince의 孤獨感, Charlotte의 欺瞞당한 苦痛, 그리고 모든 이들의 惡이나 幽靈이나 密閉나 暴力이나 殘忍性이나 모든 것을 둘러싼 暗黑의 image는 말하자면 우리들 人間의 삶의 一般的 狀況의 象徵的 表現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값비싼 代價의 報償으로 그들은 무엇을 獲得하고 또 무엇을 保全하려고 하는 것일까? 作品의 後半에서 이러한 內面の 暗黑이나 苦惱에 對照적으로 한층 듯보이게 되는 것은 이들 內面을 감싸고 있는 外見의 美이다. 네 사람이 만들어 낸 一種의 社會의 模型이다. 不義의 關係는 네 사람이 爲爲해 왔던 高度로 洗練된 生活을 破壞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現實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如前히 保全되었다. 일어났던 일에 관한 說明도 辨明도 告白도 鬭爭도 없다. 그들은 完全히 內面の 動搖와 苦悶을 숨기고 平靜을 維持하고 있다. 예를 들어 Prince는 undisturbed manner로 威嚴을 보인다. Verver氏의 polished old ivory 같은 表面은 빈틈이 없다. 그리고 Maggie는 Prince가 그 完璧한 外

것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라기 까지 하는 것이다.

Maggie의 眞實한 所望은 "The golden bowl—as it was to have been" "The bowl with all our happiness in it. The bowl without the crack" (p.400)을 손에 넣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幸福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진 그 自體가 破損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作品의 題目이기도 한 黃金盃는 內部の 水晶에 금(crack)이 가 있었기 때문에 作品의 冒頭에서 Prince와 Charlotte가 사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Maggie가 偶然히 사들인 것이다. 作中에서 이 金盃의 比喩는 여러번 나오고 있으며, 여러가지 意味로 解釋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黃金의 鍍金은 內부에 숨겨진 금을 숨기고 人間의 눈을 속인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形體가 없었다면 그 안에 幸福이 들어갈 可能性은 전혀 없다. 이 金盃의 特色이야말로 James가 이 作品에서 描出한 世界의 特色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場面을 살펴보자.

Verver氏의 豪華別莊의 一室에서 깊은 안개에 싸인 어느날 晚 Prince, Charlotte, Verver氏, Assingham夫人, 네 사람이 table을 둘러 싸고 bridge game을 하는 場面이 있다. 카드 놀이를 할줄 모르는 Maggie는 밖 한 구석에서 雜誌를 읽으면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完全한 外見을 形成하고, 安全을 즐기고 있는 듯한 것을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Maggie는 그들의 假面을 벗기고 그들의 平靜함을 破壞해 버리고 싶은 激烈한 衝動을 느낀다. 모든 것은 自己의 뜻대로 이며, 무서운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는 誘惑을 느낀다. 그녀가 만약 한마디 自己가 不當한 取扱을 받고 있다고 외친다면 그들은 파랑계 질려서 이 noble consistency도 瞬時間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衝動은 곧 사라졌다. Maggie는 그들이 다함께 事態를 圓滿히 處理해 주기를 無言中에서 자기에서 嘆願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녀는 terrace에 나와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본다.

They might have been—really charming as they showed in the beautiful room, and Charlotte certainly, as always, magnificently handsome and supremely distinguished—they might have been figures rehearsing some play of which she herself was the author; they might even, for the happy appearance they continued to present, have been such figures as would, by the strong note of character in each, fill any author with the certitude of success, especially of their own histrionic. They might in short have represented any mistery they would; (p.454)

만일 그들이 무엇이나 表現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또한 그녀가 劇作家이고 그들에게 어떤 役이라도 시킬 수가 있다면 부디 좋은 役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Maggie는 생각한다. 그녀는 또한 비여 있는 옆 방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여기를 어떠한 것으로나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t was a scene she might people, by the press of her spring, less fragments of her golden bowl she was trying so hard to pick up. (pp.454—55)

이 마지막 文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James는 形體의 美를 破壞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醜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避하려고 한다. James는 Maggie에게 네 사람의 關係를 維持케 하는 役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積極적으로 사람들에게 美를 演技케 하여 美를 創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美를 損傷시키지 않으려는 態度는 美를 통하여 삶을 肯定하려는 態度와 相通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것이 삶이며, 이 以外에는 삶이 없고 또한 人間이 그래도 삶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것이 이처럼 아름다운 外見을 가지고 있는 것에 感謝해야 할 것이다. 美는 惡을 隱蔽하지만, 善을 誘引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적어도 形體가 없다면 內面을 奪還할 수는 없다. 비록 完全히 할 수는 없을지라도 美의 形體 그 自體가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美를 무서운 것으로 보았다. 그것이 惡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숨겨진 것이 밝혀진 以上 外見의 美는 오히려 하나의 支柱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醜한 것과 無秩序를 나타내지 않고 숨겨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平靜함과 威嚴과 禮儀範節이 바른 것등의 外見의 美는 James의 從來의 유럽人들에게는 언제나 그러왔든 것처럼, 숨겨진 欺瞞이나 惡과 對比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眞實이기는 하면서도 밖으로 露出시켜서는 안되는 個人的 內心の 恐怖나 羞恥나 孤獨感 등의 形體가 없는 醜함과 對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內心の 無秩序의 暗黑과 比較할 때, 秩序있는 밝은 社交場은 사람들이 休息할 수 있는 唯一한 場所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引用 文을 보자.

It (to intercourse with visitors) helped them, unmistakably, with each other, weakening the emphasis of so many of the silences of which their intimate intercourse would otherwise have consisted. Beautiful and wonderful for her, even, at times, was the effect of these interventions—their effect above all in bringing home to each the possible heroism of perfunctory things. They learned fairly to live in the perfunctory; they remained in it as many hours of the day as might be; it took on finally the likeness of some spacious central chamber in a haunted house, a great overarched and overglazed rotunda, where gaiety might reign, but the doors of which opened into sinister circular passages. Here they turned up for each other, as they said, with the blank faces that denied any uneasiness felt in the approach; here they closed numerous doors carefully behind them—all save the door that connected the place, as by a straight tented corridor, with the outer world. . . (pp.492—93)

이 幽靈의 집에 있는 中央의 방이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 것인가는 明白하다. 會話나 禮儀나 配應에 의해서 形成된 이 방을 支配하고 있는 快活함과 결코 自己와 他人과를 속이기 위한 僞裝에 不遇한 것은 아니다. 各自는 內心의 不安과 恐怖를 숨기고 이 방의 美와 秩序를 지키는 同時에 여기를 救援으로 삼고 있기도 한 것이다.

潛在된 惡이나 抑制된 苦惱는 露出된 것보다도 무서운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인가 살 基礎가 存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숨겨야만 할 것이다. 「機械的인 것이 갖는 heroism」이란 사람들 사이의 交際에서 禮儀나 習慣등의 도움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內心에 反해서 演技하는 役に 불과할 것이다. Maggie, Charlotte, Prince, Verver 氏는 모두가 훌륭한 俳優이다. 끝까지 沈黙이 지켜지고 最後에는 Charlotte와 Verver 氏가 美國에 가기 위하여 Maggie와 Prince에게 作別人事를 하러 온다. Charlotte는 이제 눈부실 만큼 平靜함을 보이며 女王처럼 堂堂하게 아름답다. 이 場面의 調和와 美는 各自가 各各 다른 方式으로 치뤘던 苦惱에 대한 報償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이 作品의 人間에의 極度로 審美的 藝術品的 見解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作品은 Prince와 Maggie가 남고, Maggie는 Prince가 이제는 眞正으로 自己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는 大幕에서 끝난다. 이렇게 하여 Maggie가 Prince에게 眞實한 사랑을 가르쳐 주므로써 그는 外見에 부합되는 內面을 얻은 것이며, 이 점 美의 外見은 部分的으로나마 그 內面을 奪還하는데 成功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結末에도 不拘하고 前述한 것처럼 內心의 暗黑속의 暴力이나 破壞의 意志나 苦惱와, 찬란한 外見과의 對立은, 가장 苦心하면서도 가장 外見의 美에 生命을 걸었던 Charlotte를 犧牲하므로써 이 作品을 全體적으로 安當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 作品의 世界全體는 숨겨진 금(crack)이 있고, 한번 깨어졌으나 修復되어 黃金色 鍍金 때문에 금도 보이지 않는 題目의 the golden bowl을 닦았다. 이 世界도 부서졌을 때의 形體없는 醜함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保存할 만한 價値는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第一部에서 強調된 international theme과 結付될 때, 이 作品은 James가 最後에 到達한, 유럽世界에의 評價와 그 內情에의 洞察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勿論 過去의 遺産인 美의 形體, 즉 外見이 이미 reality가 아니라는 것은 問題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內面의 奪還이 恒常 希望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現實으로는 外見만이 남겨진 唯一한 것이며, 한편에서 그것은 社會秩序의 崩校를 막아주는 保守的인 힘이 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孤立化와 內面의 混沌과 죽음의 意識으로 부터 個人을 救해주는 힘이기도 한 것이다.



## IV

Henry James 가 유럽社會에서 追求한 것은 그가 理想으로 하는 洗練되고 教養있는 個人이 自由롭고 最大의 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의 마음을 無限히 魅惑하는 美가 存在하는 삶이다. 그러나 그가 現實적으로 遭遇한 유럽世界는 經濟적으로 窮乏하고 道德적으로 墮落한 社會이며, 찬란한 文明은 이미 形骸일 뿐이었다. 그러나 James 의 苦境은 그러한 社會에 대하여 道德의 反발을 느끼면서도 그의 理想의 基本的 鑄型을 거기에서 求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理想으로 하는 삶이나 文明이 現實적으로는 없다는 것을 認識하면서도 그 理想의 基礎로서 墮落하고 崩壞해 가는 유럽社會를 支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James 가 이처럼 過去의 榮光과 秩序에 執着했던 것은 그가 언제나 現代에 潛在하는 混沌과 破壞의 幻想에 苦悶하고 있었던 것을 意味한다. 그는 notebook 에 그것을 하나의 作品의 主題로 記錄하고 있다.

Yesterday at the Borthwicks', at Hampstead, something that Lady Tweedmouth said about the insane frenzy of futile occupation imposed by the London season, added itself to the hideous realization in my own mind+recently so deepened—to suggest that a 'subject' may very well reside in some picture of this overwhelming, self-defeating chaos or cataclysm toward which the whole thing is drifting. The picture residing, exemplified, in the experience of some tremendously exposed and intensely conscious individual—the deluge of people, the insane movement for movement, the ruin of thought, of life, the negation of work, of literature, the swelling, roaring crowds, the 'where are you going?,' the age of Mrs. Jack, the figure of Mrs. Jack, the American, the nightmare—the individual consciousness—the mad, ghastly climax or denouement. It's a splendid subject—if worked round a personal action—situation.<sup>5</sup>

이처럼 James 는 한 貴婦人의 말에서, 世紀末에서 世紀初頭の 社會의 自己破壞의 모습을 捕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混沌에 대해서는, James 는 美와 秩序의 幻想을 支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이미 內的 本質을 못 가진 形骸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保全하기 위하여 아무리 커다란 苦惱를 치르더라도, 그 崩壞의 阻止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James 가 이처럼 崩壞해 가는 유럽社會의 모습을 捕捉한 것은 社會的, 歷史的 展望으로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高度의 意識的인 個人의 內的 體驗으로서이다. 그것은 單純히

5. F.O. Matthissen (ed.), *The Notebooks of Henry Ja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p.207.

작품의 技法的 效果를 위한 것이 아니라, James 自身の 銳利한 意識이, 말하자면 自己의 內部에 外部의 混沌에 相應하는 危機를 感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危機感이 *The Wings of the Dove* 에서 內的 죽음의 意識에서 벗어나, 過去의 文化에 生命을 부여하므로서 하나의 理想의 世界를 創造하는 Milly 를 描寫케 했으며, 또한 *The Golden Bowl* 에서는 孤獨의 暗黑 속에서 본 混沌에서 벗어나, 人間關係를 肯定하고, 살아 남는 것을 撰擇하는 Maggie 를 表現하고, 外界를 排除하여 하나의 人工的 美的 社會를 創造한 것이다.

事實 James 에게는 살아 간다는 것은 항상 危險한 일이며, 人生의 表面의 바로 밑에 숨어 있는 暗黑과 破壞의 힘과 죽음과를 抑制하는데 있었다. *The Golden Bowl* 의 內容도 바로 이러한 James 의 意識의 反映인 것이다. 우리가 만약 살아 가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 以外에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眞正으로 意識에 눈뜨서 삶의 內部的 危險한 狀態를 充分히 認識하고, 나아가서 外面의 平靜을 維持하며, 直接的 外見의 人生과 結付되어 가는 것, 혹은 機械的인 것을 繼續해 가는 heroism을 갖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現代世界에서 삶을 撰擇하는 것이 可能한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肯定的 答을 낼려고 했던 James 의 果로운 解答이었다.

James 는 강인하게 精神的 危機를 克服하여 孤立된 自己의 內面으로 完全히 빠져 들어가 지 않고, 文化라는 共通된 傳達場所에 參與함으로써 外界와의 communication을 回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人間의 意識은 眞實로 눈뜨기만 한다면 美的 道德的인 모든 것을 理解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傳統的인 形式이 아직도 우리의 共通된 理想을 表現하는데 有效하다는 信念이 있었다. 이 信念 내지는 믿으려는 決意가 喪失되었을 때, 20世紀의 여러가지 課題가, 즉 純粹한 主觀的, 心理的 強迫觀念을 reality라고 하는 主張, Christ 教 正統의 必要性的 再主張, 또는 單純히 內的 孤獨의 自由 속에서 撰擇되었기 때문에 그 行爲의 正常性的 主張, 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ames 의 悲劇은 그가 憧憬하고 希求했던 유럽文明이 凋落의 時期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文學의 勝利는 그 自身の 幻滅의 過程이 이 文明의 崩壞의 過程과 一致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의 銳利한 感性和 自己의 內面的 課題에의 끊임없는 誠實성이, 그로 하여금 이 歷史의 內情의 眞實한 記錄者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he Golden Bowl* 은 이러한 記錄의 最上の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ary -

### The Meaning of Life in *The Golden Bowl*

Soo-jong Kim

In *The Golden Bowl* Henry James portrays for the first time an American heroine who achieves triumph and does not die by the end of the novel. He creates an ideal world in which he reconciles the beauty of appearance of European civilization with American innocence.

In the world of the Jamesian novel, Europe is represented as the zenith of civilization with romantic American heroes and heroines in search of their self-realization. In his novels prior to *The Golden Bowl* Americans had continually been depicted as the victims of European society by the ignorance of the fact that the beauty and the grace coexist with the evil and the corruption in a really old society. Europe however is the only world for Americans to live in and therefore it is unthinkable to abandon or destroy it.

In *The Golden Bowl* our American heroine suffers from the betrayal of her European husband and her Europeanized friend at first, but after her awakening and recognition that the beauty of appearance often camouflages, she finally overcame the temptation to destroy the false consistency they are all maintaining with her love and endurance. In other words, she elected to preserve appearances in order to keep the form together. She chose to gather together the shattered fragments of her golden bowl rather than to choose the things as ugly as those formless fragments of the broken bowl. The form itself disguise evil but it may also be the foundation that supports our life. Thus, the heroine affirming the values of the old order preserves its form. In conclusion it might be suggested in this novel that if you want to live in the modern world and if it is the only place to live in, you should be awakened truly in consciousness, recognizing the dangers to the inner life by keeping calm outwardly and confront the reality of life.